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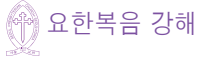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죽은 자와 산 자

(요 5:28-30)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변할 수 있는 어떤 것,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는 이와 같이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본문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생명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인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악의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 중 아무도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했으니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선악의 기준은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신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롬 2:16).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행 17:30-31).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땅 위에는 억울한 일도 있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은 반드시 옵니다.

### 1. 존재의 끝이 아닌 육체의 죽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5:29).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음을 많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희생의 제물로 죽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 11장). 그리고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 죽음 이후에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

게 되는데 이것은 영혼이 있을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을 구약 성경에서는 '소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소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때로는 지옥을, 때로는 죽음을, 때로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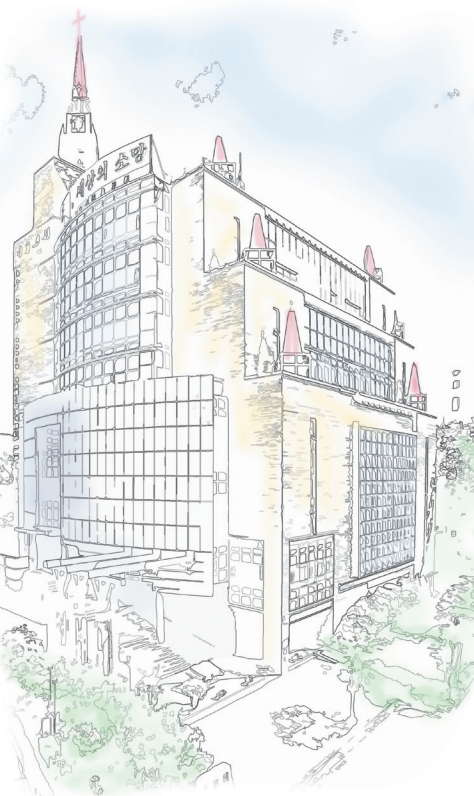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세계 역사상 큰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세계를 지배할 만큼 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동전 위에는 "저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알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끝이 우주의 끝이고 지브롤타를 땅 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놀래서 앞에 있는 단어 No를 지워버려서 "저 너머에는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이 후일에 스페인 왕가의 가훈이 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또 다른 큰 것이 있다. 그러니 왕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 2. 무덤 너머의 두 길

무덤 너머에는 완전히 두 길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생명의 영광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욥기 19장 25,26절은 가족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49편 15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어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소망으로 나와 있지만 신약, 요한복음서에 와서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나같은 죄인을 부르시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셨는데 이 교리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교리의 꽃 중의 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 임원 상대 권징 건 2차 기소명령 하다

## -2차 기소명령 불이행 시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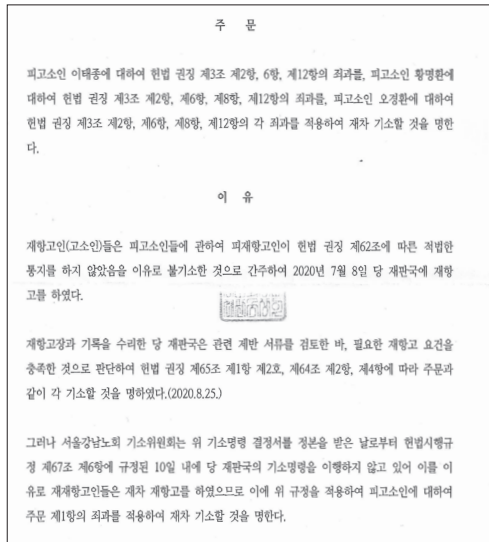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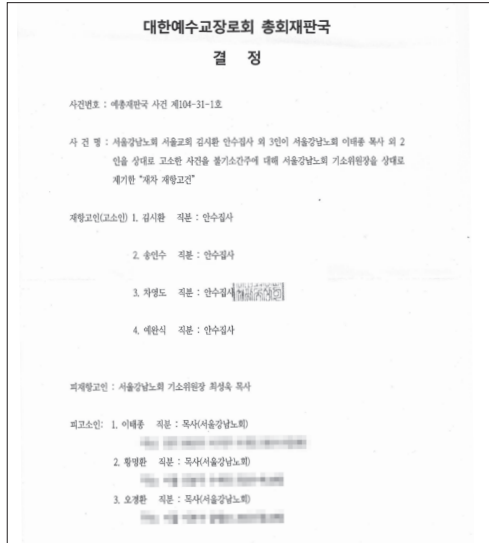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안수집사 4명은 2020년 1월 14일(화)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여 서울교회 분쟁을 격화시켜 온 이태종 목사, 황명환 목사, 오경환 목사 등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위 목사들이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등의 죄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를 접수한 서울강남노회는 약 5개월 이상 계속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2020년 7월 8일(수) 헌법 권징 제62조에 따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하자 총회재판국은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들 피고발인 목사 모두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월) 1차 기소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여전히 헌법 소정의 적법한 기일 내에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화) 다시 서울강남노회에 2차 기소명령을 한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노회가 10일 이내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따라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하게 된다.

박노철 목사에 대한 비호로 오히려 출교판결을 자초한 경우처럼 이번에도 서울강남노회가 이들 임원을 비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불이익한 처분을 초래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에 대해 안전한 거리두기 예배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수칙 2단계 격상에 따라 예배 인원수를 좌석수의 20%범위 내로 축소하기 위해 예배석 자리 배치를 의자 한 칸씩을 아예 비워두는 형태로 변경하고 3층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성도들은 교회 들어올 때 Q.R. 교인증 인식과 자동발열체크 그리고 손 소독을 필히 하고 입장하기 바라며 본당의 좌석 중 '코로나19 안전한 거리 예배석' 표가 부착된 좌석에만 착석하기 바란다.

또한 서울시의 한층 더 강화된 수칙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장년 정규예배 이외의 교회학교의 부서별 예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

## 출석교인 주차등록 오늘 마감

교회 시설이 정상화 되어감에 따라 성도들의 원활한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출석교인들의 차량등록을 11월 한 달 동안 새로 받아왔다. 다음 주부터는 미등록차량은 지하주차장

하고 찬양대도 중창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 잘 돌보시며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을 출입할 수 없다.

아직 등록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권정현·이옥수·곽선자·김형상·최금숙·최종금  
이주현·이주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수능기도회 취소

2020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2월 3일(목),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2단계 격상함에 따라 교회 현장 기도회를 취소하였다.

성도들은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해 각자 처소에서 다음 기도카드에 따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 2021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시간표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시험 영역	시험 시간
1교시 국어	08:40~10:00 80분
2교시 수학	10:30~12:10 100분
점심시간	12:10~13:00 50분
3교시 영어	13:10~14:20 70분
4교시 한국사 사회 / 과학탐구 직업탐구	14:50~16:32 102분
5교시 제2외국어 / 한문	17:00~17:40 40분

\* COVID19로 인하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제목

-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 불안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옵소서
-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온전히 거두게 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을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1월 29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2020사명자대회를 마무리하며

##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4일(주)부터 50일간 달려온 2020사명자대회가 11월 21일(토) 특별새벽기도회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과 교회 재입당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했던 이번 2020사명자대회는 매일 평균 197명, 연인원 8,310명이 매일 교회와 각 처소에서 자율기도에 참석하였으며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의 참석 성도는 성인 누적 1,394명, 주일학교 220명으로 총 1,617명이 참석하였다.

### 노재현 집사(2020사명자대회 차장)

능력이 없는 자를 사명자대회 차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을까 생각하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다하자'라는 심정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헌신된 도움 사람들(분과장)을 보내셨고, 이계홍 부장님의 지휘로 대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명자대회 부장님과 실행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황병석 집사(안내 분과장)

2020년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며칠 전에 분당을 회복하게 하시고, 손달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년간의 연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더욱 신실해진 서울교회 성도들과 다시 찾은 교회당에서 믿음생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임우택 집사(진행 분과장)

2020년 사명자대회를 온전히 열어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심령 또한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온몸과 전심으로 주님만 섬겨 주의 제단에 흠뻑 향되는 향기로운 번제물로 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뜨는 매일 매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사모하게 하시며 주께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손발 되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의 도를 묵묵히

히 걷는 사명자 될 것을 다짐하였으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원석 집사(동원 분과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일일 성경을 읽고 자율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가야 할 길을 되새기며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회복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명을 잘 깨닫고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 김예언 집사(교육 분과장)

"서울교회를 이끌 다음세대! 어떤 방법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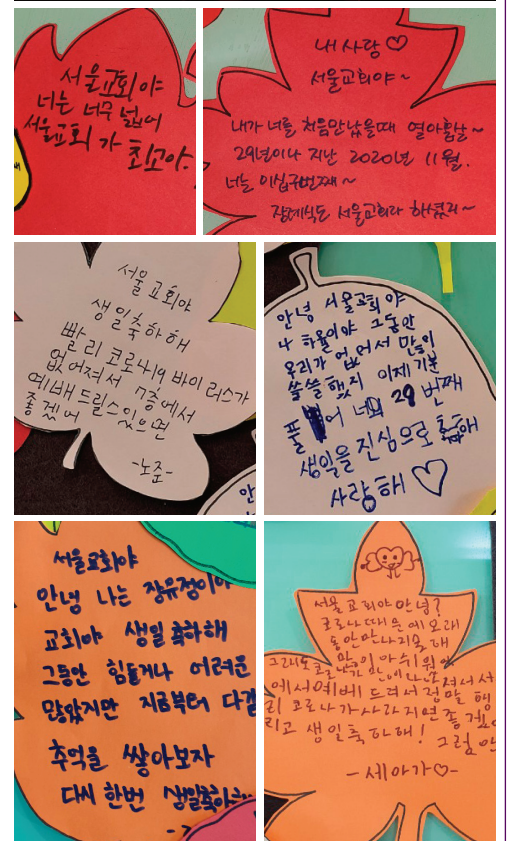
더욱이 코로나로 배(倍)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벽에 동참하고, 이동 중에 차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 지친 몸으로 들어와 새벽에 못 드린 새벽기도회에 동참하는 우리 다음세대들!!!

무릎과 돈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 29회차 사명자대회.. 그 자체가 벅차기도 하였으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셨던 선배님들의 사명의 기반위에, 서울교회 다음세대가 기도하는 무릎과 예배를 사모하는 "사명의 대물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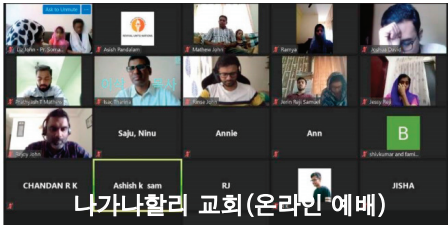
하나님 멋지십니다!!!"

## 서울교회야! 생일 축하해!

지난 주 유·초등부는 교회설립29주년을 맞아 서울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7층에 전시하였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Covid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서울교회를 인도하여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분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어 정상화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진 재정적인 상황에서 저희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는 COVID19 확진자 수가 현재 세계 2위로 7,946,429명입니다. 국제공방이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고,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 허용되고 있으며 학교는 교실에서 수업 불가지만 넓은 공간에서 수업은 가능합니다. 저희 아가페 학교는 아가페교회 예배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

니다. 아가페 학교 2층 증축은 재정 문제로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경비실과 남자 화장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아가페 교회, 나가나할리 교회(이삭), 니모처나 교회(비스타파), 단네 교회(사지), 그레이스 교회(위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가페 학교는 프레마 주임교사, 아가페 교회는 지바 전도사와 WhatsApp(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앱)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협의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안정되어 평강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상식 · 김정옥 선교사

## 봉사자 모집

교회 곳곳에서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찬양예배 안내위원 : 양동덕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차량봉사 : 김광태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주일 2부 예배 안내위원 : 부장 예완식 집사, 차장 김순진 집사에게 연락 바람
- 출입교인 발열체크 및 Q.R. 교인증 확인을 위한 봉사자 : 사무국에 문의 바람

## 각 부서별 사진 촬영

순례자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수고한 모든 부서를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

11월 22일(주) 당회를 시작으로 11월 29일(주), 12월 6일(주), 12월 13일(주), 12월 20일(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부서는 사진 촬영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유은경 집사(yoolulu@hanmail.net)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촬영한 사진들은 2020년 마지막 호인 12월 27일(주)에 실릴 예정이다.

### 동정

- 떡제공 : 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 가정  
정완진 집사 김희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 지난 주 교회설립29주년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무명의 성도가 KF94 마스크 1000장을 교회에 기증하였다.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30일	월	엡 5-6		행 14-18	
12월1일	화	빌 1-4		행 19-23	
12월2일	수	골 1-4		행 24-28	
12월3일	목	살전 1-5		롬 1-6	
12월4일	금	살후 1-3		롬 7-12	
12월5일	토	딤후 1-6		롬 13-16, 고전 1-5	
12월6일	주일	딤후 1-4		고전 6-12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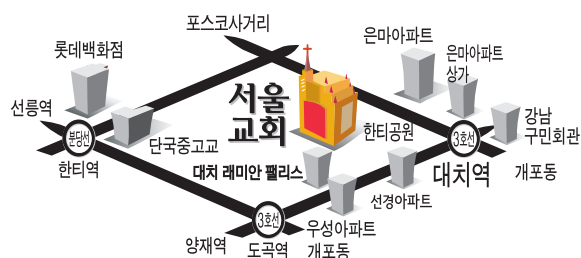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